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9일(화) 총 4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 공공주택담당 • 담당자	신영미 ☎440-4756 김찬기 ☎440-475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공급 <하루 임대료 1천 원>

- 유정복 시장,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은 시즌2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발표 -
 - 1+1 주거정책 ... 1천 원 주택, 1.0%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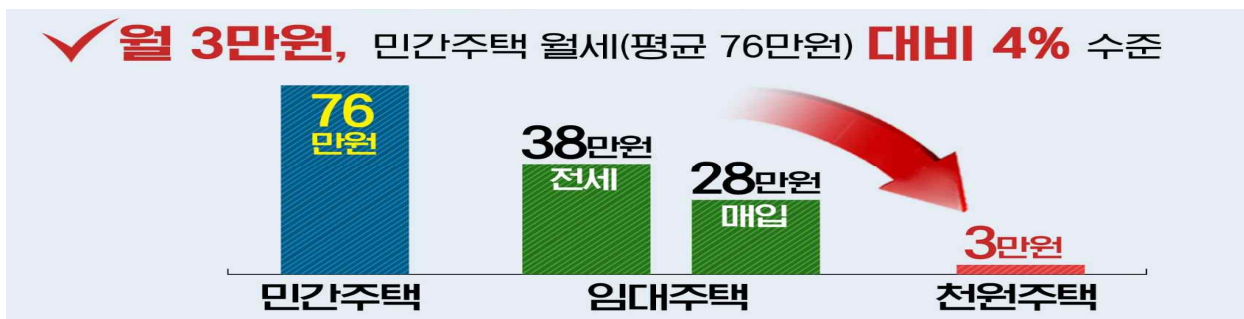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1+1 주거정책 ... 1천 원 주택, 주택담보대출이자 1.0% 지원해 저출생 대응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별 평균 임대료	천원주택	절감효과
민간주택 임대료: 월76만원	1일 1천원 (월 3만원)	민간주택: 월73만원 ↓
매입임대 임대료: 월28만원		매입임대: 월25만원 ↓
전세임대 임대료: 월38만원		전세임대: 월35만원 ↓

<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천원주택) 개요>

- * (지원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 *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 * (공급기준)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 ※ 전세임대: 최대 보증금 2.4억(초과 시 자부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 개요>

- * (지원대상)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 * (공급규모) 총 15,000호(연간 3,000호, 5년간 시행)
- * (지원내용) 대출상한 3억원(초과시 자부담) / 지원금리 1자녀 0.8%, 2자녀 이상 1.0%
- * (지원기간) 최장 5년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정책으로 전환, 장기 모기지론 도입해야”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①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②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